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4월 3일 (제84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 성공의 열쇠는 '계속'이다

‘계속’, 이것은 성공의 열쇠다. 계속 저축하면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고, 계속 노력하면 물방울 같은 작은 힘으로도 바위를 뚫을 수 있고, 계속 실력을 갈고 닦으면 쇠뿔치를 갈아 바늘을 만들 수 있다. 한 번 성공은 운일지 모르지만, 계속하면 실력이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계속하면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결과를 낳는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 있는가? ‘열 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옛말을 기억하면 된다. 한 번 관심은 호감이지만 계속은 진심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도 말씀하신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7:7). 주실 때까지 계속 구하라는 것이고, 찾을 때까지 계속 찾으라는 것이며,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는 말씀이다.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처럼.

어디 이것이 이 세상에만 국한된 성공의 열쇠일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6~18).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진대, 영혼의 성공은 따 놓은 당상 아니겠는가.

‘열두 가지 재주 가진 놈이 끼니가 없다’는 말은 자기 재주를 믿고 한 가지 일을 꾸준히 못하기 때문이다. 물도 계속 파야 나오는 법이고, 뿌리는 깊게 내려야 거목이 되는 법 아니겠는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가? 계속 연습하라. 명강사가 되고 싶은가? 계속 공부하고 말하는 연습을 해라. 부자가 되고 싶은가? 계속 저축하고 투자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가? 계속 선을 추구하고 계속 기도하라.

작심삼일(作心三日)의 성격이 문제인가? 작심삼일도 계속하면 일을 이룰 수 있다.

# 성공하기를 원하면 지혜를 구하라

지난 3월 24일, 상주예수중심교회가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입당예배를 드렸다. 이날 총회장 목사님은 상주교회 담임 박일태 목사와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智慧)의 지(智)를 보면 알 지(知)를 날 일(日)이 떠받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슬기로운 혜, 총명할 혜(慧)와 연합하여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 날마다 배우고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렛대요, 나를 성공이라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징검다리요, 날개입니다. 그래서

원을 말하라고 했더니 모두 땅을 달라느니, 아비가 관직에 오를 수 있게 해달라느니 했지만, 가장 어린 빈은 보자기를 펴며 ‘전하, 보자기에 들어오십시오. 저는 전하만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란 이처럼 사물의 핵심을 꿰뚫는 것입니다. 명의를 맥을 잡은 다음에 일침으로 병을 고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상대의 얘기를 듣고 그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읽어주는 자입니다.

또한 지혜는 최선을 다할 때 나타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명의 친구들이 최선을 다하니 창조적인 지혜가 생겨나 없던 길을 낸 것입니다. 나는 차선을

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마 10:16)고 하셨습니다. 뱀은 은혜와 염페가 강합니다. 내 속을 내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뱀은 깨끗하고, 미리 겨울을 준비합니다. 뱀은 소리를 내지 않으며,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승산 없는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이는 곧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약1:5). 그러나 조건이 없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잠



상주예수중심교회 입당예배(2016년 3월 24일)

성경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잠4:7)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여호와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 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찾아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다름 아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는 지혜와 더불어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열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은니라’(잠16:16).

어느 옛날, 고령이 된 임금이 중전을 비롯하여 11명의 빈(嬪)을 불러서 각자 소

모릅니다. 오직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주군을, 상사를, 상대를 무시하는 것인데 어찌 그 사람이 인정을 받겠습니까? 최선을 다할 때 감독의 눈에 띄어 스타를 만들어주듯 목사도 최선을 다할 때 감독되신 예수님이 보시고 스타덤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울 급난지붕(急難之朋)을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죽마고우(竹馬故友)도 좋고, 지기지우(知己之友)도 좋지만, 내가 급하고 어려울 때 도울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

주님이 열 두 제자를 파송하실 때 ‘보

2:7). 나의 목회 30년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진실’입니다. 처음 목회 9개월 만에 교회가 깨진 적이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했고, 남에게 진실하려고 노력했고,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무한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는 최고의 병기요, 전술입니다. 목회를 하든, 기업을 이끌든, 장사를 하든 지혜가 있으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주교회가 부흥하기 바란다.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상주예수중심교회 담임 박일태 목사



상주예수중심교회 전경



교단 목회자 및 장로님들이 입당예배에 참석하였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1:17~44)

# 삶 속에서 부활의 비밀을 맛보라

부활이란 '다시, 돌아올 부(復)'와 '살, 소생할 활(活)'로 이루어져,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어느 종교도 부활에 대해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봅시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신 것은 이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이틀 뒤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라비의 소식을 듣자마자 금방 달려오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흘 뒤에야 당도하시자 마르다가 원망스런 투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요11:24)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그 말씀이 내세와 현세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 같은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죽은 나사로를 그 자리에서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첫 사람 아담 때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슨 부활이냐는 겁니다. 부도나서 파산한 기업이 어떻게 부활하느냐는 겁니다. 다 깨진 가정이 어떻게 부활되고, 암 말기인데 어떻게 건강을 되찾겠느냐는 겁니다. 주의 종들 중에도 그런 신앙은 기복신앙이라고 주의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 믿으면 부활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네 기업이, 네 가정이, 네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앓은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각색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베드로의



빈 배를 채우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고통과 불행이 행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히1:8). 그러니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안에 부활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은 어쩔 수 없으니 꼭 참고 있다가 천국에나 와라. 거기서 인생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누려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잘살고, 지금 병 낫고, 지금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빈민촌에 전도를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한 집에 들어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만 그 집 주인이 그러더랍니다. "아니,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무슨 나중이요?" 그 때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생의 축복'이었답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리지 못했구나.' 하고는 그 후로 예수를 믿으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전했더니 교회가 창대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세계 각국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 부

활의 소식입니다. 그 전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그 부활의 현재성을 보고 내세의 부활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삶에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역사는 눈물 속에서 탄생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빠를 잃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 평평 울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부모 같은 오라비를 잃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말입니다. 하도 울어대니까 예수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요11:35).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

사로를 잃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심히 울었던 것처럼, 하같이 광야에서 방성대곡했던 것처럼, 우리가 울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 삶에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이로라 하는 회장장의 무남독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 딸을 살리셨고(막5:22~43),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눅7:13~14). 그런데 왜 울지 않습니까? 왜 울지 못할

## 사막에도 물이 있으면 새 생명의 꽃을 피운다

니까? 내 몸이 병들었는데,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 수출이 막히고 계속 적자를 내는데, 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인데, 내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데 왜 울지 못합니까? 자존심 이 밥 먹여 줍니까? 우세요. 부활이신 예수님이 감동하실 수 있게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내세의 부활도, 인생에서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습니다. 다들 부활절을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어 내세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 부활의 기쁨과 역사를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부활에 동참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 죽음 후의 부활뿐 아니라 현재 삶속의 부활이 있다

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안에서 의를 입은 사람은 모두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고전15:22). 계란이 사람 손에 잡히면 계란 프라이가 되거나 찐 계란이 되어 먹히고 말지만, 암탉 품에 거하면 21일 만에 병아리가 되듯,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15:19).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가져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福音)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내세의 부활, 종말론적 부활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도 예수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믿습니다. 죽은 지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컬럼::

# 살아있다면 움직여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주 사용하며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낡고, 녹슬고, 무너져 내린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둔 새 자전거나 연장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잔뜩 먼지에 거미줄이 쳐지고, 습하고, 곰팡이 끼고, 군데군데 부서진 집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새로 산 자전거를 타야지, 타야지 버려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처박아 두었더니 어느 날, 검붉게 녹슬어버린 흉물로 변해버린 자전거. 결국 고물상행이다. 우리 몸도 그러하다. 나이가 먹고 늙어감에 따라 관절마디, 각 기관이 낡아가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자주 사용하고, 움직여주고, 관리하면 건강한 수명을 이어간다. 연장도 마찬가지다. 군대 수송반 작업장에 가보면 눈에 띄는 벽면에 '닦고 조이고 기름 치자'라고 쓰여 있다. 자동차 관리의 ABC이기 때문이다. 총도 사격을 하든, 안 하든, 매일 닦고 기름을 쳐줘야 오래 쓸 수 있다. 인간의 머리도 자주 사용하면 회전력이 좋아지지만, 그냥 방치하면 점점 더 둔해져갈 뿐이다. 매사 그러하다. 그래서 달란트도 묻어두면 안 되는 것이고, 뭐든지 자주 활용하며 움직여야 한다. 살아있다면 뭐든지 해야 한다는 말이다. 목사님이 자주 설교하시는 말씀이다.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전10:10). 그냥 두면 녹슨다. 자주 쓰고 관리해야 번

쩍 번쩍 빛을 내며 제 기능을 다한다. 이 세상 만물의 이치가 그러하다. 이 거대한 우주조차 조금도 쉬지 않고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인간의 심장도 멈추는 그날까지 쉬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화학작용도 끊임없이 일어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선의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원수 되기 십상이다. 말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온갖 추측과 편견으로 엄청난 틀이 생기기 시작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 아무리 좋은 씨앗도 땅에 떨어져 물과 태양을 만나야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다.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초도 그냥 두면 백년, 천년, 초로 굴러다닐 것이지만, 머리에 불을 붙여 스스로를 태우며 자신을 녹이면 주위를 밝혀주는 빛으로 거듭난다. 따라서 내 삶이 세상에, 역사에 뭔가 하나의 의미가 되려면, 오늘 움직여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선을 추구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고, 내 가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 독립과 반공과 민주주의를 위해 젊음을 헌신했던 우리 선배들처럼, 포기하는 젊은 세대가 아니라 세계로 지평을 넓히며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역동적인 우리 젊은 세대를 기대한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신앙논객::

# 이름값을 해야 할 텐데

제 본명은 신재식(申宰植)입니다. 그런 제 이름이 바뀐 것은 2014년 3월 7일, 제 바로 윗 선배님들의 신학교 졸업예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예배 전에 전화를 주셔서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혁주'라고 한다. 빛날 혁(赫), 주인 주(主), 주님을 빛나게 하는 종이 되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나는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니 그저 죄송스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에는 소위 이름값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과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름 하나도 그냥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아브람은 원래 그 이름이 '큰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열국의 아버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이후 그 이름에 걸맞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영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이 '발꿈치를 잡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더니,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까지 가로채는 '침노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압박강 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끝에 이스라엘(하나님이 투

쟁하시다, 하나님과 겨루다)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 이름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쓰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다윗(사랑하는 자)과 나발(어리석다), 그리고 아비가일(내 부친이 기뻐함)이 등장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다윗 일행을 나발이 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영접하지 않자, 다윗은 나발과 그의 일족을 죽이려고 올라갑니다. 그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진정시켜 그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때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삼상25:25). 결국 나발은 그 이름대로 어리석게 화를 자초했다가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든,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새로 받은 이름이든, 하나도 의미 없는 이름이 없고 '나발'같이 나쁜 이름도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아비가일처럼, 귀한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 할미꽃을 보게나

따사한 양지쪽  
무덤의 할미꽃  
바시시 고개 드니  
중후한 여인네 옷맵시 같구나  
지는 꽃 서러워 울던 그 날도  
따사한 봄기운  
부활의 꽃피니  
덧없다 한탄한 할미꽃  
진자주꽃 피며  
청춘을 노래한 할미꽃 보게나

- 장성호 앞산 기도원 가는 길 朋友 이초석

::귀를 기울이세요::

# 나의 소원, 나의 대한민국

1909년, 안창호, 신채호 등과  
한일독립단체인민회 참가  
1928년, 이시영, 이동녕 등과  
한국독립당 조직  
1932년, 이봉창, 윤봉길 등의  
의거를 지휘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선출 후 미군 신탁통치  
반대 자주독립 주도  
1948년,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을 제창  
위의 업적을 이룬 인물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였으며 애국종교인이었던 백범 김구이다. 얼마 전 3·1절을 맞이하여 효창공원에 위치한 김구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효창공원은 독립운동가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등과 함께 백범 김구의 묘가 안장된 곳이다. 김구는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대한민국 독립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그가 쓴 백범일지는 청소년 필수도서로 지정될 만큼 그의 업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 기념관에서는 백범 김구의 유년시절부터 일제에 저항하며 독립운동에 뛰어든 과정, 임

시정부 활동일지와 함께 자주독립에 애쓰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애쓴 발자국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지난주일 교회신문에는 총회장 목사님의 '내 사랑 대한민국'이라는 시가 실렸다. '그대는 아는가?/ 조국 잃은 자 비통함/ 이 설움~ 저 설움~ 크다한들/ 조국 잃은 설움만 하라.../ 아~ 아~ 그 설움 누가 알랴...' 태극기와 함께 실린 이 시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친 백범 김구와 그가 키우고 적지에 보내 생명을 다한 독립운동가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은 2000년 전 죄인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닮아 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나라를 사랑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선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눈길을 걸어 갈 때 어지럽게 걸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백범 김구-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성경에서 배운다::

# 산을 깎은 사랑

인도의 켈라우르라는 마을에는 험준한 바위 산 사이로 길이 하나 있다. 이 길이 생긴 사연이 아주 특별한데, 만지히라는 남자 홀로 22년간 오로지 망치와 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22년 전,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큰 부상을 입었는데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병원이 있는 이웃마을에 가려면 거대한 산이 가로막혀 70km를 걸어가야만 했고, 그의 아내는 결국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이후 남자는 아내를 보낸 슬픔과 그녀를 향한 사랑을 길을 만드는데 쏟아 부으며 낮에는 생계를 위한 일을, 밤에는 산을 깎는데 전념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지만 결국 그는 22년에 걸쳐 산을 깎았고, 결국 이웃마을까지 거리를 1km로 단축, 덕분에 마을 사람들도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그의 사랑과 노력에 감동한 인도인들은 그의 이야기를 영화와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고 한다.

인도판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 불리는 그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것은 그가 행함으로 '아내를 향한 진실된 사랑'을 증명해냈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3:18)는 말씀처럼, 하나님도, 사람도 말로만 하는 값싼 사랑에 지쳤고 혀로만 하는 사랑이 얼마나 거짓된지도 잘 알고 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부자관원이 찾아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으며 자신

은 율법도 잘 지켰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고, 결국 그는 근심만하다 집으로 돌아간다. 까다로운 율법을 모두 지킬 만큼 대단해 보였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결국 재산과 관직을 내려놓는 요구 앞에 그 진짜 크기가 증명된 셈이다.

반대로 세리장 삭개오는 부러움을 살만한 외모도 아니었으며 오로지 돈이 자신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심만으로도 감격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이 속여서 뺏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서원한다. 이는 자기의 전부를 망설임 없이 내어놓는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함을 보면 비로소 증명되는 것일진대, 이 두 사람 중 과연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깎아야 할 산은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그리고 이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랑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2:16~17).

하인명  
renming@daum.net

::참된 깨달음::

# 행복한 나눔!

만약 누군가 나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선물해준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마음을 나누는 일상의 기부! "맡겨둔 커피", 혹은 착한 기부커피, 서스펜디드 커피(Suspended coffee)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서스펜디드 커피는 돈이 없어 커피를 사먹지 못하는 노숙자나 불우한 이웃을 위해 미리 돈을 내고 맡겨두는 커피를 말합니다. 자신의 커피 값을 지급하면서 불우한 이웃의 커피 값도 미리 지급해 보관하는 방식으로 약 100년 전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미리내 운동"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혼자'라는 말은 단어만으로도 외로움이 묻어나고, '함께'라는 말은 단어만으로도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동행이야말로 참되고 복된 삶이 아닐까요?

터키의 에스키셰히르의 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이를 세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잘 살았다'는 삶의 경험이 있을 때마다 집문 기둥에 금 하나씩을 그어 죽은 후 그 숫자를 '참 삶의 나이'로 묘비에 새겨준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나이가 아닌 참 삶의 나이가 묘비에 기록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90세까지 장수해도 참 삶의 나이는 20세로 기록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이 땅에서 30세의 나이로 단명해도 참 삶은 90세의 나이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떡국을 먹는 숫자의 신체적 나이가 아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참된 삶의 참 나이가 된다는 깨달음 속에 7,80평생을 살면서 과연 나의 '참 삶의 나이는 몇 살일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은 몇 살입니까?

김정옥 전도사  
jcc01115@naver.com

## 수요예배

장소: KBS88체육관  
시간: 수요일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 주일은사집회

장소: KBS88체육관  
시간: 매주 주일 오후 3시  
문의: 02, 533, 9191

::Edu Section::

#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라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라!'는 구절은 2016년 교회 달력 첫 페이지에 적혀있던 우리 목사님의 잠언이다.

20년을 운영해온 나의 기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사교육 몰아붙이기를 시작한 수년 전부터였다.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을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겠다는데, 내 작은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내 기업도 별 수 없이 흔들리는구나!'라는 안일한 생각이 끝없이 떠올랐다. 결과적으로 20여 년 전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꾸려온 내 사업장이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해 정리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기도방 벽에 걸려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라'는 글귀가 살아 움직이듯이 나에게 스멀거리면서 찾아왔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였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래, 사업을 접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한번 움직여보자. 죽은 나사로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에 생기를 불어넣고 군대를 만드신 그 분이 나의 아

버지인데...'라는 생각으로 아침마다 기도를 시작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입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 전부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기로 작정했다. 20여일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내 사고(思考)의 방에 파란 등이 들어왔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다.

수년 간 해온 구태의연한 광고에서 벗어나 시류에 맞는 광고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은 나에게서 떠나질 않았고,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긴 순간,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광고 방법을 찾게 되었다. 덕분에 문 닫기 직전의 사업장은 채 보름도 되지 않아 기적과도 같이 최고 활황기에 버금가는 상태로 정상화되었다.

눈물을 뿌리면서 찾아낸 시류에 적합한 광고 방법은 '뿌린 대로 걷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나는 수년전 포털 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했고, 별 생각 없이 맛집이나 착한 가게를 만나면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린 적이 많았다. 그 덕분에 맛집이나 착한 가게가 성업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자주 들었는데, 그렇게 나의 마음을 주장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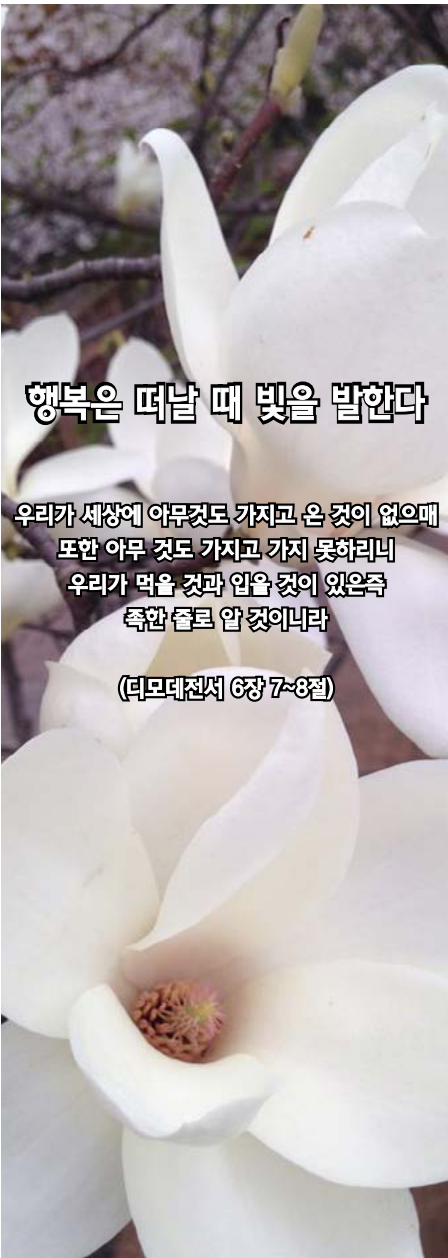
던 이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썼던 내 후기가 그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작은 기쁨이었고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이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죽어가는 사업장을 살린 것은 다름 아닌 나 같은 마음을 가진 포털 사이트의 블로거들 덕분이었다.

우리 학원을 알게 된 학부모가 우리 학원을 세세하게 소개하여 주었고, 그분의 착한 홍보를 덕분에 사업장은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내가 십 수년 동안 이루어놓은 사업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최고의 명품 사업장이 되어 있었음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이다.

배부르고 자족할 때, 그분은 잠잠히 계시지만 죽은 나사로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를 만지는 순간마다 그분은 나에게로 찾아오신다. 단, 진실과 진실어린 기도로만이 그분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 행복은 떠날 때 빛을 발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8절)